

일본 입시학원 교재 독도 강제편입 삭제

난징대학살 내용 일부 지워
우익 성향 정치인 개입 추정
누리꾼들 SNS 공격·혐의도

일본의 한 유명 입시학원이 일제의 독도 강제 편입과 난징 대학살에 관한 내용을 교재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일본 누리꾼의 공격과 정치권에 사설 학원까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 인식을 추종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 각지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교육 사업을 하는 대형 입시학원 '스다이 예비학교'는 일본사 교재에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 행정 구역에 편입한 것과 중일 전쟁 중 벌어진 난징대학살에 관한 내용 일부를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다이는 '일본사 근대 I'에 등장하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해 기정사실화하고 다케시마라고 명명했다'는 설명을 삭제했다.

또 '일본사 근대II'의 난징 학살에 관한 대목에서 '중국 민중·투항병·포로의 학살은 수십만 명 이상'이라는 부분을 지웠다.

이들 교재는 스다이의 강사 등이 입시 경향이나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약

20년 전부터 매년 개정해 온 것이며 문과 계열 고교 졸업생을 상대로 주요 사용된다.

스다이가 독도와 난징 학살에 관한 기술을 삭제한 것에는 우익 성향의 일본 정치인 측의 연락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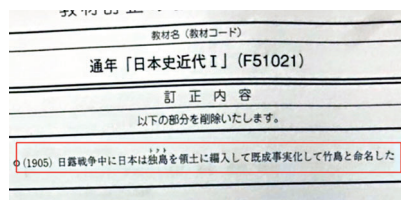
교재에 실린 독도 관련 설명 사진이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 나돌았고 이후 교재 내용에 대한 비난이 쇄도해 학원 측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31일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중의원의 의원 사무실에서 '트위터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기술이 교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학원 측은 밝혔다.

결국 스다이는 "여러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삭제를 결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울러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각지의 계열 학원에 삭제한 곳이 어디인지 연락했으며 야마다 의원실 측에도 삭제 사실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 측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보다 전에 한국이 그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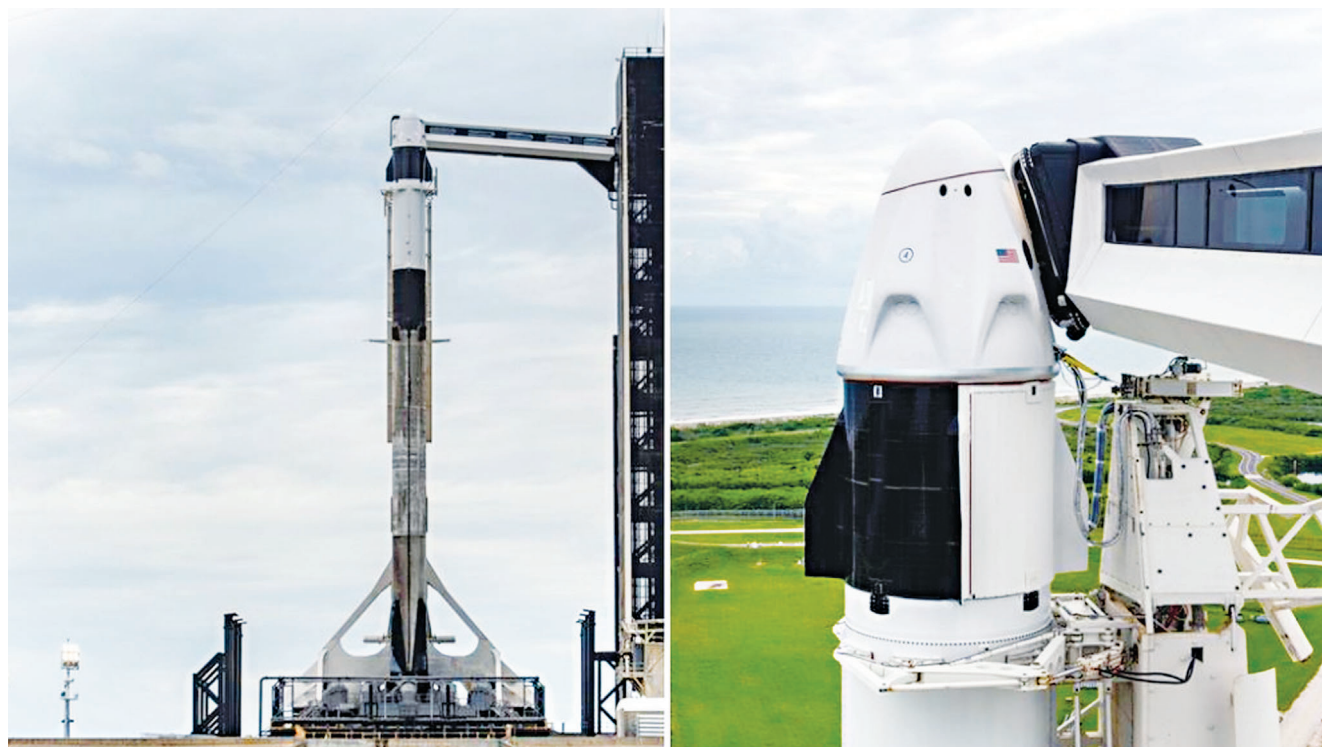
'스다이 예비학교'가 교재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안내문. /트위터 캡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징 학살에 관해서는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 살해나 약탈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수는 여러 설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히로다 데루유키 니혼대학 교수(교육사회학)는 예비학교의 경우 "공교육의 틀 밖에 있으며 학습지도요령이나 검정 교과서와 다른 교육을 해도 지장이 없다"면서 이번 삭제는 "인터넷상의 공격·비판에 과도하게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마다 의원실이 스다이에 연락해 직접적으로 삭제·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학원 입장에서는 "무형의 압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교육 바깥에서도 이번과 같은 동조가 확산하면 표현의 자유나 사상 신조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대기 중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과 크루 드래건 우주선.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

스페이스X '우주관광' 새로운 도전

미국시간 오는 15일 발사
역만장자 등 민간인 4명 탑승
사흘 동안 지구 주위 궤도 비행

우주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역만장자들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일본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스페이스X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착수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ABC 방송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이번 우주관광은 지난 7월 성공한 역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여행과는 급이 다르다.

스페이스X는 목표 고도를 575km로 설정했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과 허

블 우주 망원경 궤도보다 높은 우주 공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7,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한다. 이는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이 우주선의 민간인 탑승객 중 한 명은 베이조스나 브랜슨과 마찬가지로 역만장자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 창업주 재러드 아이잭먼(38)은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크루 드래건 네 좌석을 통째로 샀다. 아이잭먼이 이번 우주여행에 지불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의 민간인 탑승객은 세인트루드 아동 연구 병원의 전문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29),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 강사 시안 프록터(51), 록히드 마틴사



'인스퍼레이션4' 우주여행에 나서는 4명의 민간인 탑승객.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

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켐브로스키(41)다.

스페이스X는 1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 이전에 이들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사흘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한다. /연합뉴스

코로나 종식 "세계인구 90~95% 면역 생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인구의 90~95%가 면역력을 획득해야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을 통해서든 백신을 통해서든 코로나19와 접촉한 후에야 대유행이 끝난다는 의미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보건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 전망에서 세계 수십억 명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앨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향후 수개월

이 험난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오스터홀 미네소타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전 세계에서 전염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 전염은 상당히 빠르게 감소했다가 올가을과 겨울에 또 한차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의 백신을 무력화하는 새 변이 출현 가능성과 코로나19가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계절성 독감이 될 가능성,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

WHO 지정 '우려' 변이				
영향 계통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최초 발견 시기	2020. 9	2020. 5	2020. 11	2020. 10
최초 확인 국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영향 계통	에타	요라	카이	람다	뮤
최초 발견 시기	2020. 12	2020. 11	2020. 10	2020. 12	2021. 1
최초 확인 국가	아라곤가	미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자료: WHO

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 등도 우려한다. /연합뉴스

미국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국제사회에 위협"

미국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서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런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시간으로 13일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경계 감시를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 계획에 근거해 모든 공중의 위협에 대처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호하는 능력과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 / BAR

로비

회의실

객실

웨딩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천년의빛 영광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